

우성이였던 현상이 간장에서는 장간이 우성방향으로 변하는 조생통 일×수원 232호 조합에서는 억제 인자를 수원 232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시한 대부분의 조합이 간장에서 보답도 초장에서 우성의 정도가 둔한 편이었다.

12. 수도 내냉성에 관한 연구

I. 장기 냉수처리에 의한 내냉성 품종 선발과 품종별 냉수 반응 차이에 관하여

(작물시험장) 최현옥, 김종호, 최해준, 안종국

국내 육성 품종, 채래종 및 도입 품종 등 1,080 품종을 1977년 춘천 내냉성 검정포에 4월 25일 파종, 6월 5일에 이앙하여 이앙 후 10일 경부터 $17^{\circ}\text{C} \pm 1^{\circ}\text{C}$ 의 냉수를 만생종의 출수기까지 장기 처리 하여 품종별 냉수 반응의 차이와 임실률을 중심으로 선발된 내냉성 품종들의 특성 및 이들 형질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임실률을 중심으로 선발된 내냉성 품종은 도입 품종 50, 한국 채래도 20, 국내 육성종 1 품종 등 총 71 품종으로 한국 채래 품종 중에서 다수의 내냉성 품종이 선발되었으며, 도입 품종 중에서는 일본, 동남아 열대 지역의 고냉지 품종과 이들과 교잡 육성된 남방계 품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내냉성 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 모본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품종들로써는 반달벼, 구중도, 강원도,

태풀도, 돈나, Shionai 20, Pratao, 1R3941-60-2, Kn-16-361,
1R7167-3-1, Leng kwang 등을 들 수 있다.

2) 내냉성 품종들을 출수지연율과 간장단축률을 중심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면, 대개 Indica 품종이 Japonica 품종들에 비해서 출수지연과 간장억제가 심한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봐서 Indica형 내병성 품종들은 특히 지연형 냉해에 대한 내냉성을 겸한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재료로 써는 부적합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영양생장 기간 동안의 저온으로 인한 적고정도에서도 Indica형 내냉성 품종들이 심한 경향을 보였다.

3) 내냉성인 품종일수록 수온이 낮아짐에 따른 임실률 저하정도가 둔한 경향을 보였으며 급격한 임실률저하를 보이는 한계온도도 낮았고, 간장단축이나 출수지연 정도등과 저온에서의 임실률간에는 간장의 장단, 출수의 조만 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내냉성인 품종은 거의 모두가 장간이었다.

13. 수도품종별천에 따른 유용형질 별이에 관한 연구

(작물시험장) 오윤천*, 강영길, 이종훈, 최현옥

육성년대가 다른 8개수도 품종을 4비료수준에서 재배하여 이 품종들의 형태적 생리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신품종 일수록 간장과 하위절간이 짧고 잔기증이 크며, 다비조건에서도 도복에 강하